2014년11월13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⑤	①	②	④	④	⑤	③	①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①	②	①	③	③	④	⑤	①	⑤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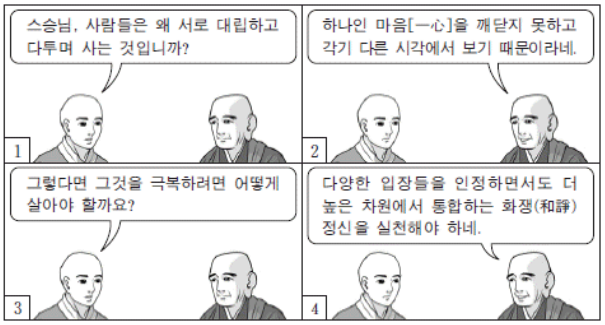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

②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불변의 자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③ 사회적 도덕규범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④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 절대자와의 합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⑤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견해들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앎이다. 왜냐하면 선의 이데아는 최고의 이데아로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자 주인이기 때문이다.
> 을: 선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선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고의 선은 행복이며, 행복의 필수 요소는 중용의 덕이다.

① 갑은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제의 덕이 필요 없다고 본다.

③ 을은 용기의 덕을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로 본다.

④ 을은 인간적 덕과 시민적 덕을 동시에 갖출 수는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도덕적 진리의 근원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성인(聖人)은 그 은혜가 만대(萬代)에 미치는 경우에도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외부 사물을 그 자체에 맡겨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 친소(親疏)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고, 이해(利害)를 따지는 자는 군자가 아니며, 명예를 좇아 참된 자아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① 군주는 인정(人情)에 따라 상벌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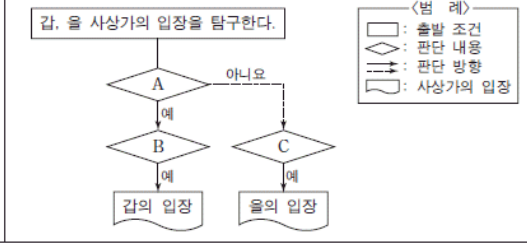
② 성인은 시비(是非) 논변을 초월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③ 군자는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정(仁政)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선비는 예법[괆]에 따라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⑤ 인자는 차별 없는 사랑[兼愛]으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4.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 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言]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을: 무력을 바탕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覇道)이고, 덕을 바탕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왕도(王道)이다. 통치자는 이익[利]의 추구보다는 인의(仁義)의 실현에 힘써야 한다.
(나)	

① A : 효(孝)를 모든 도덕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가?

② B : 인간은 선천적으로 양능(겉能)을 지닌다고 주장하는가?

③ B : 정명(正名)에 입각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는가?

④ C : 일정한 생업[恒産] 보장을 왕도(王道)의 시작으로 보는가?

⑤ C : 생산 활동을 통한 백성의 경제적 이익[利] 추구를 부정하는가

5. 서양 사상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유덕함은 영혼의 훌륭함을 말한다. 따라서 영혼의 훌륭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유덕함이 무엇인지 알면서 부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부덕한 행위는 무지로부터 나온다.
> 을: 유덕함과 부덕함의 구분은 어떤 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비난의 소감에 근거한다. 시인(是認)의 대상은 유덕함이 되고, 부인(否認)의 대상은 부덕함이 된다. 이처럼 도덕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

① 도덕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② 도덕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에 근거하는가?
③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데 도덕적인 행위가 요구되는가?
④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적 지식이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가?
⑤ 도덕적 덕과 악덕의 구별이 감각 경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사단(四端)은 단지 이(理)만 말한 것이고 칠정(七情)은 이와 기(氣)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두 갈래의 정(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을 두 갈래로 보는 것과 이기가 서로 발(發)한다는 설은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 을: 칠정은 이(理)와 무관하게 바깥 사물과 우연히 만나 감응(感應)하여 발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도 칠정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이(理)를 위주로 말하면 이가 발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 병: 어떤 이가 한 그릇의 밥을 발로 차면서 주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롭다[義]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이 있어, 선을 행하면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죄(罪)가 된다.

① 갑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所從출]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② 을은 본연지성은 발하는 과정에서 선악으로 나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기가 발할 때에는 항상 이가 기를 탄다[乘]고 본다.

7. 을은 부정, 병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사단(四端)은 단지 이(理)만 말한 것이고 칠정(七情)은 이와 기(氣)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두 갈래의 정(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을 두 갈래로 보는 것과 이기가 서로 발(發)한다는 설은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 을: 칠정은 이(理)와 무관하게 바깥 사물과 우연히 만나 감응(感應)하여 발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도 칠정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이(理)를 위주로 말하면 이가 발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 병: 어떤 이가 한 그릇의 밥을 발로 차면서 주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롭다[義]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이 있어, 선을 행하면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죄(罪)가 된다.

〈보 기〉
ㄱ. 사단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行事]으로써 형성되는가?
ㄴ.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단의 확충을 통해서 획득되는가?
ㄷ. 덕(德)은 마음의 이치[理]로서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ㄹ.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향[嗜好]은 인간의 본성[性]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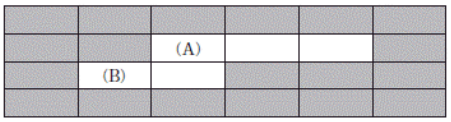
8. (가) 사상의 관점에서 (나) 사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민족은 심리적, 문화적, 생태적 유기체이자 혈통, 언어, 지역이라는 공통 요소로 결속된 운명공동체로 규정되어야 한다. 민족은 인류와 함께 영속될 것이므로, 민족 단위 주권국가의 권능을 강화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 (나) 인류는 국적, 인종,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 공통의 윤리 규범을 수립하고 세계공동체로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세계공동체는 전 세계를 민주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세계시민에게 징세와 분배를 실행할 권위를 지녀야 한다.

〈보 기〉
ㄱ.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다.
ㄴ. 현실을 무시하는 과도한 보편주의를 강요할 수 있다.
ㄷ. 합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 국수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ㄹ.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해 제시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승인되고 불행을 가져오는 행위는 부인된다. 쾌락이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행복으로, 고통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불행으로 이어진다. 쾌락의 양은 계산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이다.
(나)	 [가로 열쇠] (A): 도교(道教) 권선서(勸善書)의 일종으로 일상적인 행위에서 잘한 점[功]과 잘못한 점[過]을 점수로 기록하는 책 (B): 어떤 일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을 일컫는 말. 예) 천부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이다. □□와 의무 [세로 열쇠] (A): …… 개념

①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② 행위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자의 동기의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③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④ 쾌락의 질(質)을 결정하기 위해 쾌락의 양(量)을 계산하는 척도이다.

⑤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0.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ㄱ), (ㄴ)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인간과 자연은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으로 우주의 질서를 깨닫고, 정념으로부터 벗어난 상태(apatheia)를 추구해야 한다. 을: 인간은 삶의 의지가 가장 완전하게 객관화된 존재이며,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이다. 맹목적 의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고통과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
(나)	갑: ㉠ . 그러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을: ㉡ . 그러면 삶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	㉡
①	자연법칙에 순응하라	본능적 삶에 충실하라
②	자연법칙에 순응하라	의지를 철저하게 부정하라
③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라	자연법칙에 순응하라
④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라	의지를 철저하게 부정하라
⑤	의지를 철저하게 부정하라	본능적 삶에 충실하라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11. 그림은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은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서 실현된다고 본다.
ㄴ. 을은 보편자가 현실에서 경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ㄷ. 갑, 을은 신학에서 신앙보다 이성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신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 구성된 개념적 존재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의지의 선함이 도덕성을 결정한다. 선의지는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의무의 행위는 정언 명법으로 표현된다. 인간은 정언 명법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따른다. 이런 이유로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 을: 의지의 순수한 자기입법이 도덕적 의무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무가 개인의 의지에 근거한 주관적 도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관적 도덕은 객관적 법으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인륜으로 종합된다.

① 갑은 선의지에 의한 행위도 불행을 낳게 되면 비도덕적 행위로 본다.
② 갑은 도덕 법칙의 필연성이 도덕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고 본다.
③ 을은 윤리의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윤리의 상대적 특성을 강조한다.
④ 을은 윤리의 역사적 특성이 참된 자유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의지의 자율성은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아님을 강조한다.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사회 이익의 증진을 의도할 때보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이익이 더 효과적으로 증진된다. 특혜나 제한을 두는 제도가 폐지되면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형성된다.
> 을: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실제 구매력 있는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보 기〉
ㄱ. 갑은 자유 경쟁 체제가 국부 증진에 기여함을 강조한다.
ㄴ. 을은 완전 고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긍정한다.
ㄷ. 갑, 을은 사적 소유권 보장보다 불평등 해소를 우선시한다.
ㄹ. 갑, 을은 각 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나는 자연 상태를 경쟁과 불신 등으로 인한 전쟁 상태로 생각한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이며, 단지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 을: 나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회 계약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약에 합의한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의 결과물인 계약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갑은 국가의 강제력이 없어도 사회 계약이 지켜질 것이라고 본다.
② 갑은 계약에 합의하는 순간 자기 보존 욕구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
③ 을은 사회적 우연성이 계약 상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④ 을은 적극적인 이타심에 의해 사회 정의의 원칙이 구성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개인들이 합의한 사회적 규약은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15. (가)의 중국 유학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간과 사물이 천지 사이에서 생겨날 때, 이(理)는 동일하지만 품수한 기(氣)는 서로 다르다. 인간은 기의 바름과 통함을, 사물은 기의 치우침과 막힘을 얻었다. 이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이다. 을: 인간은 모두 양지(良知)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是非之心)이다.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性]이고, 내 마음의 본체로서 자연히 대상을 환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	

〈보 기〉
ㄱ. A: 인간만이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갖고 있다.
ㄴ. B: 인간은 누구나 사단(四端)을 지니고 있다.
ㄷ. C: 인간의 마음[心]이 없이는 어떠한 이치[理]도 없다.
ㄹ. C: 인간은 누구든지 성인(聖人)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민주정치에서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다수결만으로 확보되지는 않는다. 의사 결정은 개인들의 선호를 단순히 종합한 결과로 간주될 수 없으며, 합당하고 도덕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자의 선호를 공적 의사로 전환시키는 심의가 필수적이다.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시민들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대화와 논증 절차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① 심의 주체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② 관련된 정보의 공유로 시민들의 이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③ 개인적 관점의 한계를 넘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④ 개인의 고정된 선호가 변화하지 않도록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⑤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는 공론의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양물(洋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道)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 나갈 뿐이다. 우리 것이 융성하면 저들 것이 사라질 것이다.
> 을: 천지만물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 음식을 먹는 것은 한울님을 먹는 것이니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 병: 원(圓)은 우주 만유(萬有)의 본원이며,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실재이다.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교법이 비록 천만 가지로 다르나, 실제로 원 이외에 다른 법은 없다.

① 갑은 화이론(華夷갱)의 관점에서 외세에 대한 저항을 주장하였다.

② 을은 봉건적 신분질서에 반대하고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③ 병은 정신적 삶과 물질적 삶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을, 병은 후천개벽을 통한 현세에서의 지상낙원 실현을 주장하였다.

⑤ 갑, 을, 병은 유·불·도 삼교(三敎)의 사상적 재통합을 주장하였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우리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도덕적·정치적 책무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도덕적 연대와 의무를 포함한다. 개인을 무연고적 존재로 이해한다면 이 책무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 을: 개성의 자유로운 발달은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문명, 지식,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개인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① 갑은 시민의 좋은 삶은 공동선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② 갑은 사회에 선행(先궦)하는 존재로서의 자율적 자아를 옹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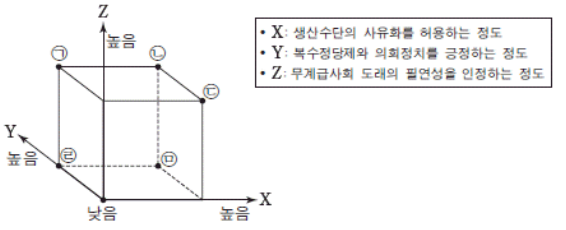
③ 을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행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을은 다수의 여론을 사상의 자유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갑, 을은 국가를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19.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나) 사상에 비해 (가)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ㅁ)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사회주의자는 민중 참여에 기초해서 점진적·합법적으로 생산의 계획화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독재하에서 자유를 쟁취하려는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
> (나) 프롤레타리아의 당면 과제는 부르주아 지배의 타도와 정치 권력의 장악을 통한 계급 대립의 종식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①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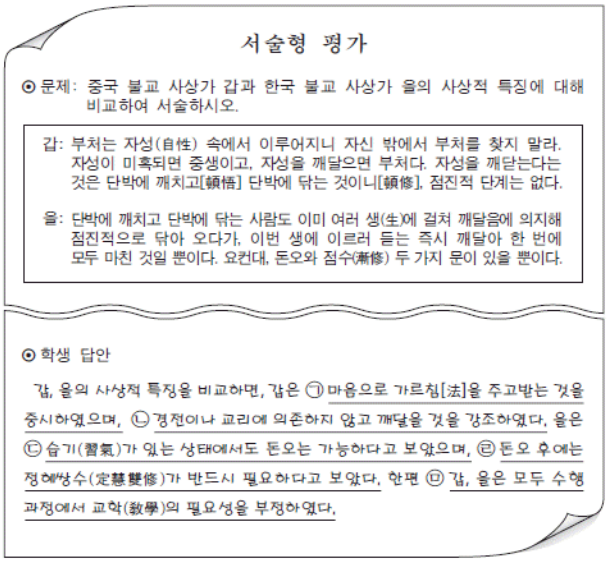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ㄱ)~(ㅁ)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중국 불교 사상가 갑과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부처는 자성(自性)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자성이 미혹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다. 자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頓悟] 단박에 닦는 것이니[頓修], 점진적 단계는 없다.

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사람도 이미 여러 생(生)에 걸쳐 깨달음에 의지해 점진적으로 닦아 오다가, 이번 생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한 번에 모두 마친 것일 뿐이다. 요컨대, 돈오와 점수(漸修) 두 가지 문이 있을 뿐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사상적 특징을 비교하면, 갑은 ㉠ 마음으로 가르침[法]을 주고받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 경전이나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 을은 ㉢ 습기(習氣)가 있는 상태에서도 돈오는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 돈오 후에는 정혜쌍수(定慧雙修)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 갑, 을은 모두 수행 과정에서 교학(敎學)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